

광주여대 오예진, 대통령기 양궁 3관왕

여대부 개인전·70m·30m '금 명중'
광주은행 최미선·김이안 개인전銅
남고부 광주체고 단체전 '빛나는 금'



지난달 29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광주 양궁을 빛낸 스타들. 왼쪽부터 광주은행 최미선, 광주여대 오예진, 광주은행 최미선.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국가대표 오예진에게 여자대학부 적수는 없었다.”
광주여대 오예진이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오예진은 지난달 29일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대학부 결승전에서 엄혜정(경희대)을 세트스코어 6대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32강에서 김영은(원광대·7대3 승), 16강에서 장미(경희대·6대5 승), 8강에서 김아현(장원대·6대0)을 연파한 오예진은 4강에서 조민서(동서대·6대4)를 꺾고 결승에 안착했다.
앞서 거리별 경기 70m와 3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건 오예진은 대회 3관왕에 올랐다. 50m에서 은메달을 보낸 오예진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최미선과 김이안(이상 광주은행 탠텐양궁단)이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미선은 이다빈(하이츠진로), 박소민(LH), 이은경(순천시청), 조아름(현대백화점)을 꺾고 4강에 올랐으나 ‘복병’ 한솔(홍성군청)에게 발목이 잡혀 결승행이 무산됐고, 김이안은 김아영(전북도청), 최예지(대구 서구청), 유수정(현대백화점), 임두나(LH)를 꺾고 4강에 올랐으나 임두나(LH)에게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흥성단체전에서는 광주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승윤(남구청)과 김수린(광주시청)이 팀을 이룬 일반부와 이원주(조선대)와 오예진(광주여대)이 호흡을 맞춘 대학부에서 값진 동메달을 따냈다.
남자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가 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최우진, 심태한, 박주혁, 심유한이 팀을 이룬 광주체고는 16강에서 경남(5대4 승), 8강에서 서울(5대4 승), 4강에서 대전(6대2 승)을 꺾고 결승에 올라 대구를 세트스코어 5대1로 제압하며 빛나는 금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체고가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건 2016년 종별선수권(정다위, 공시현, 이성준, 박준혁)에서 남·여 동반우승 이후 8년 만이다.
여자고등부 개인전에서는 광주체고 남지현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지현은 64강에서 김도영(대구체고), 32강에서 남가형(전북체고), 16강에서 장율리(울산 스포츠과학고), 8강에서 구슬(경기체고)을 꺾고 순항했으나 4강에서 신서빈(대구체고)에게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광주 양궁은 오예진이 금메달 3개, 김수린(광주시청)이 30m에서 한국신기록 타이로 따낸 금메달을 포함해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따내는 선전을 펼치며 ‘양궁 메카’ 위상을 드높였다. /박희중기자

“조직 재정비, 선진 행정 구현”

광주시체육회, ‘선수·시민 최우선’ 기능 개편 인사

광주시체육회가 7월1일자로 하반기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기존 1차 2본부 4부 1실 11팀 1연구원을 유지하고 기능 중심 개편에 초점을 뒀다. ▲관련 인사명단 18명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인사로 시민과 선수를 위한 체육회를 만들고, 공약사항을 성실히 추진해 선진 체육행정에 내실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기능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부서 통합으로 종합적 인 정책 수립 등 종목단체, 선수, 지도자, 동호인 중심의 사업추진과 선수환경 구조 개편으로 기능 강화 ▲안전감사부 신설로 법률 검토 체계 및 법적 안



전관리 기능 강화 ▲안정적인 조직구조 개편 등이다.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장은 “민선 7기 들어 1년여 만의 기능 개편 및 전보 인사인 만큼 체육회 조직의 효율성을 최우선했다”며 “체육회를 재정비해 시민과 선수를 위한 체육 행정에 매진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지난달 28일 경북 문경시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미디어데이에서 전용태가 펜싱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대5종 ‘될놈’ 전용태 “파리서도 우린 ‘될놈들’”

2회 연속 올림픽 메달 도전...“큰절 세리머니 기대해주세요”

“제가 좇아 있는 사람이라고요, 계속 ‘될놈’로 가겠습니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광주시청)는 과거부터 “‘될놈’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제가 ‘될놈’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해 왔다.
한국 근대5종의 사상 첫 올림픽 입상에 도전한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낸 말이었다. 당시 그 약속을 동메달로 지켜낸 뒤 새로운 올림픽을 앞두고도 ‘될놈’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북 문경의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근대5종 대표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전용태는 “다른 수석이 필요 없이 저는 계속 ‘될놈들’로 가겠다. 대표팀 전체가 ‘될놈들’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도쿄에서 바로 뒤 4위로 들어온 대표팀 선배 정진화와 전한 포용으로 ‘브로맨스’를 드러냈던 그는 파리에선 “큰절 세리머니”를 계획 중이다.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가 메달을 따 뒤 관중석에 계시는 한국 응원단을 향해 큰절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감독, 코치님과 한국 응원단이 있는 곳으로 절을 올리고 싶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이번 시즌 들어선 월드컵 개인전에서 입상이 없었으나 이달 중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5년 만에 개인전 동메달을 따내며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의 청신호를 켜다.
전용태는 “리우데자네이루, 도쿄에 이어 3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노력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노력과 메달 색깔은 비례하기에 금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도쿄에서 바로 뒤 4위로 들어온 대표팀 선배 정진화와 전한 포용으로 ‘브로맨스’를 드러냈던 그는 파리에선 “큰절 세리머니”를 계획 중이다.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가 메달을 따 뒤 관중석에 계시는 한국 응원단을 향해 큰절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다”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내면 감독, 코치님과 한국 응원단이 있는 곳으로 절을 올리고 싶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 월드랭킹대회 개인·혼성전 ‘銀’

파리 패럴림픽 메달 청신호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김옥금이 2024 체코 장애인양궁 유럽컵 및 월드랭킹 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했다.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김옥금은 30일 체코 노베 메스토 나드 메투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WW1 결승전에서 펠리차리 아시아(이탈리아)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김옥금은 4강전에서 다메노 다일(이탈리아)을 7점 차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실전대회로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천민이(도쿄 패럴림픽 개인전 금메달) 김스톤 빅토리아(도쿄 패럴림픽 개인전 동메달), 펠리차리 아시아(필젠 세계선수권 개인전 은메달) 등 세계 장애인 양궁 간판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김옥금은 박홍조(서울시청)와 팀을 이룬 혼성단체전에서 143점으로 세계랭킹 1위 중국

(144점)에 이어 은메달을 합작했다.
혼성단체전에는 중국(도쿄 패럴림픽 혼성 금메달), 체코(도쿄 패럴림픽 혼성 은메달), 이탈리아(필젠 세계선수권 혼성 동메달) 등이 참가해 마지막 실전을 치렀다.
도쿄 패럴림픽 혼성단체전에서 4위를 차지해 아쉽게 메달을 놓친 김옥금은 이번 대회 메달 획득으로 파리 패럴림픽 메달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김옥금은 올해 열린 제8회 파자(두바이) 장애인 양궁 월드랭킹대회 및 파리 패럴림픽 쿼터대회 개인종합 1위, 제2회 장애인 양궁 유럽컵 및 월드랭킹대회 개인종합 2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김옥금은 “내년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광주의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안고 대회에 참가했다. 아쉽게 금메달은 놓쳤지만 부족한 1%를 보완해 파리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힘



2024 체코 장애인양궁 유럽컵 및 월드랭킹 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한 김옥금. (광주시장애인양궁팀 제공)

든 여정 속에 100%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거둬 다행이다. 경기 결과를 떠나 남은 기간 오직 선수 자신만을 믿는 완벽한 자신감을 키워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훈련으로 파리 패럴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절대 1강’ 신진서 9단 2년 연속 란커배 결승행

한국바둑의 ‘절대 1강’ 신진서 9단이 2년 연속 란커배 결승에 올랐다.
신진서는 지난달 29일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스현에서 열린 제2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4강에서 중국 당하오 9단에게 133수 만에 불계승했다.
다른 준결승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인 중국의 구쯔하오 9단이 일본 아야마 유타 9단에게 24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구쯔하오는 지난해 결승에서 신진서에게 1패 후 2연승을 거둬 란커배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리턴매치가 성사된 올해 결승 3번기는 8월19일 중국 취저우에서 개막한다. /연합뉴스

‘끝판왕’ 박현경, 2주 연속 연장 우승

맥콜·모나 용평 오픈 제패...상금·대상·다승 선두

박현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대세’로 떠오를 조짐이다.
박현경은 30일 열린 KLPGA 투어 맥콜·모나 용평 오픈 최종일 연장전에서 최여림을 제치고 우승했다.
둘은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8타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18번 홀(파5)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첫 번째 연장전에서 박현경은 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고, 조금 더 가까웠던 최여림의 버디 퍼트는 홀을 비켜갔다.
지난 23일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



박현경이 30일 열린 ‘맥콜·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최종라운드에서 우승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KLPGA 제공)

에서 우승했던 박현경은 2주 연속 우승을 거뒀다.
두산 매치플레이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거뒀던 박현경은 이번 시즌에만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미 상금과 대상 포인트 1위에 자리 잡고 있던 박현경은 다승 부문에서도 이에원을 따라잡아 3개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선두에 나섰다.
박현경에게는 2주 연속 우승과 시즌 3승 모두 처음이다.
통산 7승을 거둔 박현경은 연장전에서 4승을 따냈다. 7일 전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도 윤이나와 박지

허인회, 5타 차 딛고 연장 우승

비즈플레이·원더클럽오픈 제패

허인회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비즈플레이·원더클럽오픈에서 5타 차 열세를 뒤집고 역전승을 거뒀다.
허인회는 30일 인천 클럽72CC 하늘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허인회는 장유빈과 동타를 이루고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3라운드까지만 해도 허인회는 단독 선두 장유빈에게 5타 차 뒤진 공동 9위에 불과했다.
1차 연장전에서 장유빈과 나란히 버



버디에 성공한 허인회 (KPGA 제공)
디를 잡은 허인회는 2차 연장전에서는 홀로 버디를 잡았다.
이로써 허인회는 지난해 9월 iMBank 오픈 이후 9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해 통산 6승을 쌓았다. 우승 상금은 1억4천만원이다. /연합뉴스